



들어가기



교육목표

- 1 노동 및 노동인권 감수성이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 2 임금이 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3 우리 주변 곳곳을 채워주는 노동자를 찾을 수 있다.
- 4 해외의 노동자와 국내의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말할 수 있다.
- 5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제시할 수 있다.

교육내용

- 1차시 노동인권 감수성을 가진 눈으로 세상을 보아요
- 2차시 노동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
- 3차시 우리 곁에 있는 노동자들
- 4차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
- 5차시 건강한 환경에서 일한다는 것



용어해설

※ 용어설명은 인권교육 기본용어의 해설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세계인권선언」은 제23조와 제24조에서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인간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한과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다. 「사회권규약」 제7조는 개별 노동자의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이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자 본인과 가족의 양질의 삶이 가능한 수준의 보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평등한 승진기회, 유급의 휴식, 휴게 및 휴일보장과 노동시간에 대한 합리적 제한 등 그러한 노동조건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담고 있다.

인권교육 기본용어(국가인권위원회, 2020), 81쪽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란 취업을 목적으로 모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주한 이주민을 뜻한다. 1990년 12월 18일 제45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2조는 이주노동자를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제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해온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권교육 기본용어(국가인권위원회, 2020), 230쪽



학습하기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이 교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사이버 인권교육으로 제공되는 '중학교 노동인권'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주변의 노동자를 노동인권 감수성을 갖고 바라볼 수 있도록 노동 관련 인권문제와 사례를 중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구성했습니다. 교육센터의 영상 콘텐츠와 함께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시

노동인권 감수성을 가진 눈으로 세상을 보아요

- 노동과 노동자의 정의에 대해 정리해보고, 노동인권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시다.



생각해보기



이 그림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창 늘어날 때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그림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 남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아파트 현관문을 나섭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꽤 인상적인데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좋네”

그의 말과는 달리 주변에는 90도로 인사하는 경비노동자, 양손 가득 택배 상자를 든 택배 노동자,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노동자까지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많은 노동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하고 있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맞게 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림 속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경비노동자, 택배 노동자, 청소노동자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그는 이전처럼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노동인권과 노동자, 그리고 노동인권 감수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인권이란?

1) 인권이란?

인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나요?

인권은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당연하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는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인권을 커다란 주머니라고 생각해봅시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이 주머니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학생인권, 장애인인권뿐만 아니라 오늘 배우게 될 노동인권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나의 인권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00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권을 호소하게 됩니다.

2) 노동이란?

노동에도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니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침해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군요.

여기서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노동은 사람이 생존을 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노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활동에는 놀이도 있어요.

그럼 어떤 활동이 노동이 될까요? 법적으로 노동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활동입니다. 놀이가 노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노동은 어딘가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일터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는 활동을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조건은 노동자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보호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노동인권의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자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노동인권의 주인공은 노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인권을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즉 노동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할까요?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합니다.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돈을 주고 일을 지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장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노동자와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맺음으로써 노동자는 일을 하고, 고용주는 그 일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노동자이고 고용주인지 알아보까요?



건축가는 노동자일까요? 고용주일까요?

자신의 집을 직접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 계약을 통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자입니다.



버스 운전사는 노동자일까요? 고용주일까요?

흔히 이용하는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은 버스 운송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노동자일까요? 고용주일까요?

선생님은 교육청이나 학교에 고용되어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맞습니다.



노동자란?



의사는 노동자일까요? 고용주일까요?

만약 대학병원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의사라면 노동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병원을 열어 진료를 보는 원장님은 고용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일하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일까요? 고용주일까요?

만약 돈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노동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를 본인이 직접 열고 운영한다면 고용주겠지요.

특히 음식점이나 편의점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혼자 힘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영업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의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피자 등 유명 브랜드의 가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주이기도 하지만 노동자처럼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돈을 주는 고용주이지만, 동시에 프랜차이즈 본점의 규율에 맞게 일하므로 하는 일은 노동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동자란?



배달 기사는 노동자일까요? 고용주일까요?

대부분의 배달 기사들은 배달 어플을 플랫폼 삼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엄밀히 말해 치킨집 사장님과 같이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배달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받으면서 법적으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영업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배달 어플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일을 하기에 노동자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정해진 월급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과거에는 노동자와 고용주를 구분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의 경영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노동자와 고용주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어요.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당사자가 법에서 정한 노동자가 맞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 변화에 맞춰 실제 노동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지요.



노동인권 감수성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노동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마트에서, 버스에서, 집에서. 여러분 주변의 어떤 곳이든 노동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노동자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노동인권 감수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노동인권 감수성이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노동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인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전에는 지나쳤던 장면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의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일터가 되고, 나의 평범한 하루가 어떤 노동자에게는 인권 보장을 바라는 하루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앞으로 노동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지금은 나와 멀리 있는 노동인권이지만, 지금부터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노동 현장의 중심에 섰을 때 노동인권이 훨씬 가까워질 겁니다.

앞으로 노동인권 관련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노동인권 감수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Q1

노동인권 감수성을 가진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떤 것들이 보일까요?

앞에서 봤던 그림을 다시 볼까요? 잘 보이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인권 수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로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물려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밥 한끼, 택배 하나, 깨끗하게 치워진 도로 등 여러분의
눈길이 닿는 곳곳에 노동자들의 손길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이면 여러분은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나
고용주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노동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노동인권에 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노동인권은 특정 노동자의 권리 보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동인권을 통해 인간답게 노동하는 사람들은 나 또는 우리
주변 누군가이며, 노동의 산물로 편리한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으니깐요.

학습활동



-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학습자 활동입니다.

Q1

우리 주변에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동자를 만났는지 이야기해봅시다.

Q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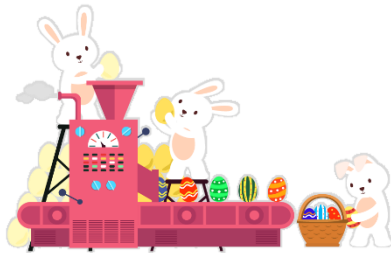
노동인권 감수성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적어보세요.

2차시 노동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

- 임금과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임금이 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보기



여기, 과자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토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움직이는 재료를 각자 맡은 역할에 맞게 가공하고 있는데요.

어떤 토끼가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임금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노동의 강도가 세고 어려운 일일수록 임금이 높아지겠지요.
또는 경력이 많을수록 일에 능숙한 숙련노동자가 되기 때문에
가장 오래 일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임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맡은 일의 중요도에 따라 직급이 높은 노동자가
임금을 더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토끼들은 임금을 받은 후 노동의 대가에 대해 모두
만족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합니다.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이란?

어떠한 활동이 노동이 되려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활동이 아니라 수입이 발생해야 합니다.

임금이란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고용주에게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반드시 돈으로 주어야 합니다. 상품권 또는 노동자가 생산한 음식이나 옷, 인형 등의 제품으로 임금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받는 주기에 따라 일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하는 시급, 일주일 단위로 지급하는 주급, 한 달을 단위로 지급하는 월급이 있습니다.

봉급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봉급이란 계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돈을 말합니다. 임금과 비슷한 말이지요.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의 삶

임금으로 힘겹게 생계를 유지했던 노동자의 삶은 노동의 역사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기의 영국은 물론 경제성장기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18세기 후반에 증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기계에 의한 생산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생산량을 300~400배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발명되었다고 사람의 손이 필요 없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품을 만드느라 기계가 하루종일 돌아가는 만큼 사람의 손도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공장에서 일하는 임금 노동자의 수도 크게 증가했어요.

어떻게 노동자들이 갑자기 많아졌을까요?

당시 영국에는 땅을 지주에게 빼앗기고 이곳저곳을 떠돌던 농민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죠. 이들은 생계를 위해 적은 돈이라도 받고 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24시간 중 18시간을 중노동에 시달렸는데요. 그럼 먹고, 자고, 쉬는 시간이 고작 6시간밖에 남지 않았습시다.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의 삶

하지만 힘겨운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노동자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공장을 소유한 자본가들이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동자에게 적은 임금을 주고 장시간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임금 노동자들의 자녀들도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4살 아이는 몸집이 작아 탄광에 들어가기 쉬웠기 때문에 광부가 되었고, 6살 아이는 손이 작아 기계 아래에 들어가 매듭을 연결하기 좋다는 이유로 모직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좁은 굴뚝 안에 들어가 굴뚝 청소를 하던 노동자도 대부분 몸집이 작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으로 인해 어린 아이를 포함하여 가족 모두가 일해도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의 이야기는 오래 전 먼 외국에서만 있던 일은 아닙니다.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였던 60~70년대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970년 10월의 신문 기사인데요.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 소녀 등 2만여 명 혹사'.

200년 전 영국의 노동자처럼 우리나라의 노동자들도 경제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1970년 10월의 신문 기사 내용

'13살 정도의 어린 소녀들이 대부분인 조수의 경우 이미 4~5년 전부터 받는 3천원의 월급을 현재까지 그대로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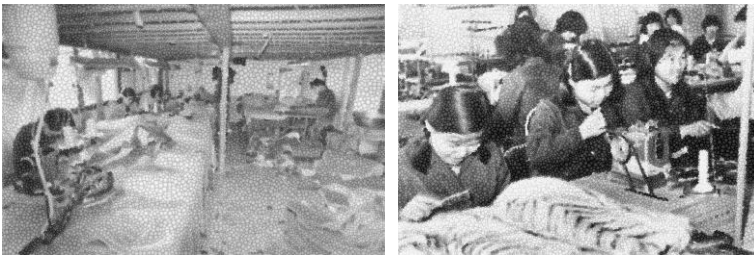
여러분 나이의 청소년들이 공장에서 일한 것도 모자라 임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문은 당시 평화시장에서 재봉사로 일했던 전태일이 신문사에 제보한 내용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는데 앞장섰던 전태일은 1970년 11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 평화시장 앞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 크게 다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의 삶



이 두 그림은 1960년대 서울 청계천 인근 평화시장의 봉제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재봉작업을 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일어나면 머리가 닿을 정도로 낮은 천장과 옷감에서 나온 먼지로 가득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는데요. 미싱 앞에서 일하는 여공들 중 많은 수가 아직 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공장에서 일했던 소녀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생계를 위해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 돈은 가족들의 생활비로 쓰였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일해도 손에 짚 수 있는 임금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니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불과 50여 년 전 우리나라의 노동자들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모든 노동자가 원하는 만큼의 임금을 받으며 행복하게 일하고 있을까요?



최저임금제도

일한 만큼,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할 만큼, 임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일해도 임금은 노동의 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받아야 할 임금을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최저임금제도를 세계 최초로 정한 나라는 1894년 뉴질랜드입니다. 무려 100여 년이 훌쩍 넘은 시기에 노동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지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서 노동자가 그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노동자들의 생활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함이지요.

우리나라는 교수와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사용자 위원 9명씩 총 27명이 모여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미리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을 국가가 정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인권이 경제성장 논리에 밀리면서 법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986년에 최저임금만을 위한 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지키기 위해 다음 해인 1987년 11월30일에 첫 번째 최저임금을 462.5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30여 년 넘게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켜진 최저임금제도는 우리나라 경제사회에서 중요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마다 논란이 되풀이되는데요. 임금에 대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최소한 1만원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치킨집이나 편의점과 같은 자영업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최저임금의 빠른 증가는 오히려 종업원을 해고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매년 올라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무척 빠듯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물가를 고려하여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생활임금을 도입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2013년에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그리고 성북구가 처음 도입한 이래 현재는 70여 개 지자체가 매년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높은 생활임금은 주로 지자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어 혜택을 받는 노동자 수가 최저임금에 비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지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될 수 있겠지요.

Q1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임금은 노동자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역사 속 임금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일하고도 매우 낮은 임금을 받아 빈곤하게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동자의 삶이 열악해져 사회 문제가 되자 정부는 그들이 받아야 할 임금의 최저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제도가 정착되었지만, 어느 정도의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할지 늘 논란이 반복됩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그들의 삶의 질과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임금, 자신이 일한 만큼 받는 임금은 결국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고민할 때 공감할만한 수준에서 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습활동



-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학습자 활동입니다.

Q1

최저임금제도는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해 왜 필요할까요?

Q2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지
모둠원들과 함께 토의해봅시다.

3차시 | 우리 곁에 있는 노동자들

- 그림자 노동의 의미를 알아보고, 가사노동부터 택배 노동자까지 우리 삶을 채워주는 여러 노동자들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보기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학교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등굣길을 채워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떠오르나요?

아침에 일어나 먹은 밥은 농부의 노동력으로 생산한 쌀로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밥을 차리지 않았다면 나 대신 누군가의 노동력 덕분에 밥을 먹을 수 있었겠지요.

학교까지 편하게 타고 온 버스는 운전자의 노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류장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걷는 길에 바닥에 깔린 보도블록도 누군가의 노동에 의해 그 자리에 있게 되었겠지요.

여러분 주변에는 노동자의 손길이 닿았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별다른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의 삶을 채워주는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때로는 상품으로, 그리고 서비스로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건 뒤에 있는 노동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 하나하나가 나에게 오기까지 많은 노동자의 손을 거쳐왔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던 우리 주변의 노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자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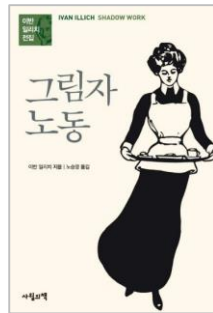
1) 가사노동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노동자들이 있나요?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임금을 받는지 여부는 노동이라는 활동의 성격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했다면 법적으로 노동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림자 노동』은 오스트리아 철학자 이반 일리치가 1981년에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인 그림자 노동은 그가 처음 정의한 노동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왜 노동에 '그림자'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림자는 항상 따라다니는 무언가를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림자 노동이란?

노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림자처럼 존재하지만, 대가를 받지 못하기에 노동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림자 노동 책의 표지에 앞치마를 두르고 쟁반을 들고 있는 여성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그림자 노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집안일을 하는 가사노동을 들었습니다.



그림자 노동

가사노동이란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말합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육아 등등 모든 것들을 말해요.

여러분 집에서는 이런 일들을 주로 누가 하고 있나요?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청소나 빨래를 하고 임금을 받고 있나요?

돈을 주고 고용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가족 중 한 사람이라면 아마 돈을 받지 않을 겁니다.

즉 가사노동은 다음 날 출근을 할 노동자들이 집에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노동자가 될 사회구성원을 길러내는 육아를 하면서 노동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자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무인 판매와 줄어드는 일자리

최근에는 그림자 노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사본 사람이라면 이제 키오스크 기계가 낫설지 않을 겁니다.

주문하고 싶은 상품을 내가 직접 골라 스스로 결제까지 하는 키오스크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매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하기까지 손가락 터치 하나면 끝나기 때문에 손쉽고 편리한가요?

키오스크로 인해 이전에는 판매 노동자가 했던 일을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상품 결제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일이지만 차이점은 임금을 받았던 노동과 받지 않는 그림자 노동이라는 점이겠지요.

이제 키오스크와 같은 그림자 노동을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자동차에 주유하는 셀프 주유소, 다 마신 컵을 직접 치우는 카페, 기계 앞에서 직접 돈을 찾는 은행 ATM기기까지. 이전에는 노동자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소비자가 직접 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지요.



그림자 노동



키오스크와 관련된 뉴스 기사 제목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일으킨 무인화 바람.
 키오스크 1대가 직원 3명 대체...인건비 절감 자구책.
 점주는 인건비 아끼고, 손님은 시간 아끼고.
 키오스크로 주문하다 10분 훌쩍...패스트푸드 맞아?
 패스트푸드 업계 키오스크 도입 확산.
 기업 인건비 절감, 소비자 시간 단축 효과.
 소비자 사용 불편 늘고 작동 오류도 빈번.



키오스크는 노동자를 대체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이다 보니 소비자들이 사용에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키오스크와 관련된 이슈들은 그 자리에 노동자가 없어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도 셀프 계산대가 많이 늘었습니다. 고른 물건의 바코드를 직접 찍고 화면의 버튼을 눌러 계산까지 혼자 하는 것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어요.

2019년 한 대형마트의 직원들은 무인셀프계산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금을 주로 쓰는 어르신들을 비롯한 디지털 소외계층과 장애인 고객들을 배려하지 않은 매장이라는 것이지요.

발전된 기술은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노동자를 대신하게 될 겁니다. 또한 기술 발전의 뒤에서 새로운 그림자 노동도 늘어날 것입니다.



사회 필수 인력이 된 택배 노동자

우리 주변에는 많은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 어떤 노동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동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어제와 같이 평온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우리 삶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노동이 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법정전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감염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시행되면서 늘 비슷했던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에 최대한 머물면서도 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택배 노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개씩 쏟아져 들어오는 전국 곳곳의 택배들을 분류하여 배달하는 택배 노동자들 덕분에 식료품, 화장지, 마스크 등을 집에서 편하게 배달받아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이제 사회 필수 업무라고 할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될 노동을 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인권을 존중 받고 있을까요?



사회 필수 인력이 된 택배 노동자



택배 노동자의 업무 과정

주문 후 배송 받기까지 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각 상점에서 소비자에게 보낼 상품을 모으는 집화가 택배 업무의 시작입니다. 이후 여기저기에서 모인 택배를 트럭으로 수송하여 전국의 택배가 한꺼번에 모이는 허브터미널로 갑니다.

택배 상자에 붙은 운송장 주소에 따라 권역별로 나뉜 몇 개의 허브로 택배들이 모여 분류됩니다. 이곳에서 각 지역 소분류 지역터미널에 보내지면 또다시 동별 주소에 따라 나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앞까지 배달되면 택배 발송이 완료되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을 거쳐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택배 운송 기간이 이틀 정도 걸리게 됩니다.

몇 년 전 택배 단계 중 노동강도가 가장 세다고 할 수 있는 허브터미널에서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보장되지 않는 노동인권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던 택배가 한꺼번에 모인 곳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고객들은 택배를 늦게 받게 됩니다.

기다리던 택배가 늦게 오면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약속된 시간에 빨리 배달을 하기 위해 건강까지 해치며 일하는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사회 필수 인력이 된 택배 노동자

택배 노동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새벽 배송 서비스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문한 상품이 최대한 빨리 내 손 안에 오는 것을 싫어할 소비자는 없겠지요.

요즘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대한 빨리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늘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새벽에 음식 재료를 배송해주고, 아침에 주문한 상품을 그날 오후에 배송해주는 등 초단기 배송 서비스 경쟁이 치열합니다.

실제로 새벽 배송 시장의 규모는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전국 새벽 배송 물량이 이전에 비해 150% 늘었다고 하니 엄청난 물량이지요.

새벽 배송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물류 혁신의 덕도 있지만, 택배 노동자의 노동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그림들은 여러 노동자들의 밥상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밥상입니다.

이 중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운전석 옆에 탄산음료가 놓여있습니다. 새벽 배송을 하는 택배 노동자의 것입니다.

이 그림 속 노동자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시간 내에 배송하기 위해 밥 대신 탄산음료로 당을 보충하면서 일한다고 하네요.



사회 필수 인력이 된 택배 노동자

밥을 먹으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새벽에 졸음운전을 할 수도 있어서 잠을 쫓을 겸 탄산음료를 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몰려오는 잠을 쫓으며 내가 기다리는 상품을 가져다 주는 노동자들.

우리가 기다리는 택배 상자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Q1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주는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은 지켜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은 과거에 비해 나날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술 발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부 그렇지는 않아요.

더 편해진 만큼 더 많은 누군가의 노동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소비자는 좋은 서비스를 원하고,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의 편리한 일상을 위해 많은 노동자가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배 노동자를 비롯하여 여러분 주변의 다양한 노동자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 지를요. 많은 사람이 노동인권 감수성의 시각으로 노동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주변은 물론 미래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도 점차 나아질 것입니다.

학습활동



-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학습자 활동입니다.

Q1

여러분 주변의 그림자 노동을 찾아보세요.

Q2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노동자는 누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노동자들을 모두 적어봅시다.

4차시 |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

- 패스트패션을 생산하는 해외노동자, 국내 산업에서 큰 일손이 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통해 노동자의 고마움을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보기

마트에 진열된 달콤한 바나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여기 바나나 공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나 농부, 플랜테이션 주인, 선적처리업자, 수입업자, 대형마트 주인인데요. 한 개의 바나나가 생산되기까지 각자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볼까요?

농부는 하루 12~14시간 동안 더위 속에서 최상의 바나나를 기르기 위해 매일 관리하고 운반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료와 살충제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요.

플랜테이션 주인은 대농장 운영을 위한 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는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선적처리업자는 바나나를 싣기 위한 화물선 유지와 관리 비용을 지출하며 상품 손상 시 경제적인 부담을 집니다.

수입업자는 항구에 도착한 숙성된 바나나를 재포장하여 창고에 보관하다가 마트까지 트럭으로 운송하고, 매년 바나나 농장과 협상을 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주인은 직원 임금과 같은 마트 운영 비용을 지출하며, 판매 전까지 바나나를 관리하고 광고하는 비용을 지출합니다.

바나나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은 단계별로 역할을 맡고 있는 다섯 생산자가 나누어 가집니다. 그럼 이들 중 누가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 갈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나나와 같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해외의 노동자와 우리나라로 이주해온 노동자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내 옷을 만드는 외국의 노동자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안쪽에 있는 상품태그를 확인해보세요. 형겅 위에 작은 글씨로 옷감의 성분과 취급 방법, 그리고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옷장에 걸려있는 옷들은 아마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었을 겁니다.



여기 이 태그를 봐주세요. 이 옷은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1억 7천 여 만명으로 세계 순위 8위의 국가입니다. 수도인 다카는 인구 밀도가 세계 1위라고 하니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의 재봉틀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류 공장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것은 값싼 노동력 때문인데요.

의류 공장에 다니는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15만원 정도로 우리나라의 임금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 붕괴 사고

2013년 4월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 인근의 사바르에 있던 지상 9층 건물인 라나 플라자가 붕괴하면서 1,138명의 사망자와 2,5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온 끔찍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의류 가공 공장이 입주해 있었기 때문에 희생자 대부분은 이 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고 직전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70여개 국에 매장이 있는 한 다국적 의류 기업의 옷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옷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나요?



내 옷을 만드는 외국의 노동자



디자인, 소재 등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아마도 가격일 것입니다.

희생된 노동자들이 만들고 있던 옷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디자인의 상품이 쉴 새 없이 나오는 패스트패션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싼 가격에 디자인까지 예쁜 옷들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방글라데시의 매우 값싼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북유럽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은 값싼 노동력이 있는 지역을 찾아 공장을 이전하였고, 이곳 방글라데시를 생산기지 삼아 많은 공장에 옷 생산을 맡겼습니다.

그 중 다섯 곳이 붕괴한 건물인 라나 플라자에 있었어요.

라나 플라자는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무너지기 6년 전인 2007년 지어질 당시에는 4층 건물이었으나, 의류 기업의 하청을 받는 공장이 잘 운영되자 2009년부터 12년까지 8층 건물로 증축을 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 허가도 필요 없었습니다.

붕괴하기 직전에도 9층을 올리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벽에 금이 가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등 붕괴할 조짐이 있었고, 무너지기 전날 건물 관리를 맡은 건축 엔지니어와 경찰이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로 인해 같은 건물에 있던 은행과 상점은 사고 당일 문을 닫았지만 의류 공장은 예외였습니다.



내 옷을 만드는 외국의 노동자

공장주는 문제없으니 계속 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붕괴 사고가 있던 오전 8시 45분은 출근 직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건물 안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붕괴가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대피하지도 못했어요.

위험한 건물 증축과 대피 권고 묵살은 노동인권이 돈보다 뒷전이 된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다른 기업보다 싸고 빠르게, 생산 비용을 낮춰 이익을 높게 하려는 기업주와 공장주의 욕심에 위험 속에서도 계속 쉬지 않고 공장을 돌렸던 것입니다.

노동자의 목숨이 완성된 옷 한 벌보다 귀하게 여겨졌다면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매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산 옷, 그리고 싫증 나서 옷장에 걸린 채 잘 입지 않는 옷 뒤에 지금도 전세계 어딘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국내의 이주 노동자

여러분 마을에서 이주민들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 주변의 이주민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면 이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2021년 통계청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21년에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민 노동자의 수는 85만 5천명 정도입니다.

이들이 받는 임금은 200만원 이상이 74.1%로, 전년 대비 6.6% 상승했으며, 200만원 미만 비율은 25.9%였습니다.

최근 주조·금형·용접 등의 제조업 근간으로 불리는 뿌리산업은 공장을 돌릴 최소한의 인력도 없어서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국내의 이주 노동자

국내 구직자의 경우 3D 업종에 취업을 꺼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의 취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던 이주 노동자들이 대거 자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새로 입국하는 노동자들도 줄어들면서 뿌리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 졌습니다.



중소 제조업체 대표 A씨

“원래 6명 채용이 목표였는데, 외국인 노동자 1명 뽑는데 1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1차 금속 업계에서 30년 동안 일하면서 요즘 같은 인력난은 처음입니다.”



경기 주물업체 50대 과장

“35년 차인 내가 전국 주물업계 막내예요. 한국 청년들은 간혹 입사해도 힘들다고 금방 그만둡니다. 외국인 인력까지 줄어들면 결국 뿌리산업은 수년 안에 사라질 날이 올 겁니다.”

이주 노동자는 우리 산업을 움직이는 노동자로서 고마운 존재이자, 인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2020년 이주노동자 차별 통계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중 지난 1년간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3% 정도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온 지 30년이 되었지만, 5명 중 1명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차별의 이유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이 61.1%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한국어 능력이 24.9%, 외모가 7%의 순이었습니다.



국내의 이주 노동자

이들의 노동인권 역시 잘 지켜지지 못합니다.

매년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임금체불과 폭력, 폭언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국내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찾는 나라가 되었지만 과거 우리나라 역시 해외로 노동자들을 보내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1900년대 초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간 우리나라 노동자들, 1960~70년대에 외화 벌이를 위해 광부와 간호사가 되어 독일로 파견 간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한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도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가지고 있는 문화만 다를 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나라에서 일해 소득을 얻기 때문에 국내 노동자와 같이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도 하기 때문에 소비활동과 함께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까지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경제활동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주민이라 다르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들의 노동인권을 가볍게 여긴다면 결국 우리 모두의 노동인권 역시 무시되고 말 겁니다.

Q1

다른 나라 노동자의 노동인권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나나 수입 배분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실제로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대형마트 주인입니다.

Q1

다른 나라 노동자의 노동인권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현실에서 바나나 생산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이익을 비율로 나누어 보면, 농부 3%, 플랜테이션 주인 17%, 선적처리업자 13%, 수입업자 23%, 대형마트 주인 44%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나요?

일한 만큼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누구나 공감합니다. 농부든 대형마트 주인이든 모두 일을 했으니 함께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얻은 이익을 나누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농부에게는 노동 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이익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국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면서 좀 더 공정한 방식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공정무역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정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들은 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생산 이익이 그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증을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하는 소비는 누군가의 노동인권과 연결된 중요한 행위입니다. 내가 먹고 쓰는 상품들을 만드는 노동자가 먼 곳에 있거나,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들 역시 기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 함께 지켜져야 노동자 모두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학습활동



-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학습자 활동입니다.

Q1

가지고 있는 물건의 원산지를 확인해보고, 해당 국가의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조사해봅시다.

Q2

국내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5차시 건강한 환경에서 일한다는 것

- 석면 등의 공해 유발 산업과 사고 위험이 있는 노동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한 노동환경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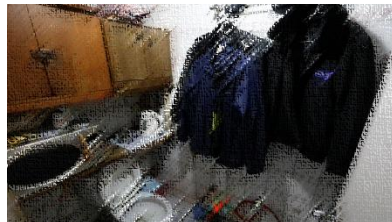


생각해보기

건강하게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입고, 먹고, 사는 의식주를 들 수 있습니다. 의식주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겠지요.

그림을 하나 볼까요? 어떤 공간인 것 같나요?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의식주가 모두 갖추어져 있지만 과연 건강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곳은 2020년 5월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경비노동자가 일했던 경비초소의 내부를 묘사한 것입니다.

화장실 안에 생전에 입던 옷과 식사를 할 때 썼던 전자레인지와 커피포트가 있네요. 이 곳에서 살았던 분은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었을까요?

노동자들은 하루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노동하며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일터는 집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변의 노동 환경은 건강하고 안전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건강하지 못한 노동 현장들을 살펴보고 건강한 노동 환경이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공해 유발 산업의 노동 환경

공해 유발 산업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공해 유발 산업이란 매연, 폐수, 소음뿐만 아니라 각종 유해 물질을 배출하여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산업을 말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은 환경문제는 물론 인체에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무늬의 천장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사진은 천장재로 석면을 사용한 곳을 촬영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많은 학교 교실의 천장재로 석면이 쓰였습니다.

최근에는 석면 제거 공사를 하면서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석면이란?



화강암의 일종으로, 돌이지만 실제 형태가 실처럼 생긴 돌솜입니다. 머리카락의 5000분의 1로 매우 가늘지만 잘 끊어지지 않고, 400도가 넘는 고온에서 견딜 수 있고, 방음도 잘되고, 썩거나 닳지도 않고 전기나 열도 석면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격도 저렴해서 건축 재료로 많이 쓰였습니다.



공해 유발 산업의 노동 환경

하지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가느다란 석면 가루가 공기 중에 있다가 폐 속으로 들어와 몸속에 쌓이면 각종 암을 유발합니다.

1987년 WHO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후 유럽은 1990년대, 일본은 2006년에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를 하다가 2015년 전면 금지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 지도를 볼까요? 석면 공장의 이동 과정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화살표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요?

석면공장 이동의 시작은 1974년 프랑스에서 있었던 사망 사건 때문입니다.

석면으로 천을 만들던 프랑스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 12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석면이 암을 유발한다는 소식을 들은 독일은 1981년 석면 공장을 폐쇄합니다.

공장주는 독일에서는 쫓겨났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석면 기계들을 한국으로 수출하지요.

비슷한 시기에 미국 역시 석면 생산을 금지시키면서 석면 공장은 아직 금지되지 않은 일본으로 이동합니다. 일본의 임금이 높아지면서 문을 닫게 된 석면 공장은 한국으로 또다시 기계를 수출합니다.

7~80년대 한국에서는 일본과 유럽에서 사온 기계들로 석면 가공제품들을 많이 생산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석면공장들은 노동력이 싼 동남아시아와 중국으로 이동합니다. 이 나라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싼 것 뿐만 아니라 환경 기준 또한 낮았기 때문에 환경오염 정화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한 것이지요.



공해 유발 산업의 노동 환경

1987년 국제적으로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공식 인정되면서 석면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유해 물질에 대한 인식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비교적 저렴한 석면을 생산하고 사용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폐 속으로 흡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석면이 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석면 기계 이동의 고리를 끊어주었다면 이후 석면으로 인해 죽은 노동자들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있겠지요.

석면 외에도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벤조피렌,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독성물질인 불화수소 등의 유해 물질은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유해 물질이 나오는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겠지요.

생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유해 물질의 노출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환기 장치 설치하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건강한 노동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석면과 같은 유해 물질이 없다고 하여 안전한 노동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노동 환경



2019년 11월 21일 경향신문의 1면은 깨알같이 작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찼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입니다.

2018년1월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1년 9개월동안 일하다가 일터에서 죽은 사람들은 1,692명이라고 합니다. 그들 중 지면에 담을 수 있는 1,200명의 이름을 적은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유해 물질로 인해 질병을 얻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 건강하게 일을 하다가 떨어짐, 끼임, 깔림, 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맞음 등으로 인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어난 사고 역시 건강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쌓인 먼지로 인해 센서가 작동하지 않자, 이를 제거하다가 역으로 들어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해 사망한 것입니다. 19살의 이 노동자의 가방에서 점심에 먹을 컵라면이 발견되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10일 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의 김용균씨 사망 사고는 위험한 노동 환경의 문제점을 크게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 기계를 점검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는 사고로 사망한 김용균씨 역시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하여 노동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의역이나 김용균씨 모두 옆에 누군가 있었더라면, 안전 규제를 더 강화했더라면 아직도 건강하게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 노동자였겠지요.

일터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 중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노동 환경



특성화고 재학 중 현장실습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들

- 2014.02 울산시 한 공장에서 야간 작업 중 무너진 지붕에 깔려 사망한 고 김00(19)군
- 2017.11 제주시 한 음료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기계에 눌러 사망한 고 이00(17)군
- 2021.10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잠수 작업 중 사망한 고 홍00(19)군

지붕에 깔리고, 열차에 치이고, 기계에 눌리는 등 안전 장치를 점검하고, 수칙을 잘 따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죽음들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산업재해들을 사전에 방지해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다가 기계에 끼이고, 떨어지고, 깔리고, 부딪히고, 물체에 맞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죽음들이 계속되는 우리의 현실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어요.

이와 함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들을 계기로 앞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Q1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건강한 일터 만들기는 어렵지 않아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두 사진은 모두 건설 현장을 찍은 것입니다. 둘 중 어떤 현장이 더 안전해 보이나요?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시스템 비계라고 합니다.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외부에 구조물을 만들고 몸과 연결된 줄을 구조물에 고정했네요.

다음은 안전 장비를 착용한 건설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거나 안전 장비들을 구입하고, 유해 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듭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돈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을 가진다면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누군가는 위험한 일터에서 오늘도 땀 흘려 일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건강과 우리 사회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한 노동환경 만들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학습활동



-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학습자 활동입니다.

Q1

건강한 노동 환경은 왜 중요할까요?

Q2

여러분이 미래에 노동자 또는 사용자가 되어 지낼 일터의 환경은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학습정리

1차시

노동인권 감수성을 가진 눈으로 세상을 보아요

- 우리에게서 일상의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일터가 되고, 나의 평범한 하루가 어떤 노동자에게는 인권 보장을 바라는 하루가 될지도 모릅니다.

2차시

노동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

-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받아야 할 임금을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노동자의 임금은 그들의 삶의 질과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차시

우리 곁에 있는 노동자들

-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별다른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의 삶을 채워주는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습정리



4차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

- 이주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서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경제활동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5차시

건강한 환경에서 일한다는 것

-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